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1호
2021년 5월

주요 이슈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 개념 및 구성요소

ESG 동향

2050 탄소중립과 정보공개 의무화
국내 금융권의 ESG 동향

주요 통계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김천구 연구위원

ESG가 기업 경영의 떠오르는 화두가 되고 있다. 기업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 관리 요소로 ESG가 대두된 것이다. ESG가 등장하고 확산된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확대를 빼놓을 수 없다.

① 기후변화와 ESG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기업 경영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동 보고서는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전략을 요구하였다.

이후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협정으로 구체화되었다.

1997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통해 37개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고, EU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 플라스틱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로 ESG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국제 기후변화 체제 변화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기간	2008~2020년	2021~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1차 5.2%, 2차 18%)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C 제한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 참여 독려
감축 의무국	선진국(37개)	모든 협정 가입국(195개)

②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전세계적 불평등의 심화로 주주중심 기업 경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며 ESG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는 주주를 중심으로 경영 목표와 시스템을 설정하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업경영은 주주 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해관계자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등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자를 의미한다.

2019년 8월 애플, 아마존, 월마트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소속된 미국의 BRT(Business Roundtable)가 기업의 목적을 '주주 가치 및 이윤 극대화를 넘어 근로자·고객·거래업체·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선언 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2020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지속가능성과 함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지배구조(governance), 지구(planet),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등 4가지를 핵심 축으로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 지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ESG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등장되고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ESG가 기존 재무적 가치 중심의 경영전략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까지 고려하게 만들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지고 ESG가 핵심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에서 ESG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존을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ESG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혁신동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비교

	주요 특징 및 성과 측정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	<p>주주 이익 보호 및 주주가치 극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엄격한 기업공시 중시 <p>기업의 시장가치(주식가격)로 성과 측정</p>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p>이해관계자간 이익의 균형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영방식, 주주 외 광범위한 세력의 경영 참여 가능 <p>기업의 시장가치, 고용관계, 거래관계 등으로 성과 측정</p>

※ 자료 : 금융연구원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선병수 책임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프레임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기업이 관리해야 할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ESG의 개념

기후변화 위기감에서 시작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요구는 2006년 UN PRI(유엔책임투자원칙)가 '책임 투자를 위한 6가지 원칙'을 제정하면서 ESG로 구체화 되었다.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원칙을 제시하는 UN PRI는 '책임 투자를 위한 6가지 원칙'에서 투자 분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이슈를 포함하고, 투자대상 기업에게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것 등을 제안했다. UN PRI는 ESG를 '위험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의사 결정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가치 측정과 더불어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ESG는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 또는 '기업의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로 정의되고 있다.

책임투자를 위한 6가지 원칙(UN PRI)

1. 투자 분석·의사결정시 ESG를 적극 포함한다.
2.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를 반영한다.
3. 기업에 ESG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
4. 금융산업의 PRI 준수·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PRI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6. PRI 정착을 위한 활동과 진전상황을 보고한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비재무적 성과의 관리가 중요해졌고, 투자자도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해야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SG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자료 : 한국거래소

② ESG의 구성 요소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세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핵심 요소별 하위 지표는 기관별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문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배출이 가장 대표적인 이슈이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환경규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에너지 효율화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

지난해 WEF(세계경제포럼)가 발표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토지사용 및 생태 민감성, 물 이용 등을 환경관련 핵심 이슈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탄소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용수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친환경 특허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ESG를 평가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회부문에서는 인권 보호, 근로조건 및 다양성 확보 등의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이 부각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로 CEO 보상 수준, 성별 임금 격차, 직원 이직률, 성별 다양성, 임시근로자 비율, 사업장내 사고 발생 빈도, 아동 노동 및 인권 정책 수립 여부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인적자원 관리, 산업안전, 하도급 거래, 제품 안전, 공정경쟁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부문 ESG를 평가하고 있다.

지배구조부문에서는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 뇌물 및 부패 방지, 정치적 리스크 관리 여부, 기업 윤리 및 공정 경쟁, 정보의 공개 관행 등을 체크한다.

ESG 평가기관 및 정보공개 이니셔티브 등이 제기하는 평가지표로 이사회 다양성 및 독립성, 단체교섭, 윤리 및 부패 방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이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대표되는 기업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ESG의 구성요소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 자원고갈 · 물 · 공해 · 삼림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 현대 노예 · 아동 근로 · 근로조건 · 근로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 및 부패 · 경영진 보상 · 이사회 다양성 및 구조 · 정치적 로비 및 기부 · 조세 전략

※ 자료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50 탄소중립과 정보공개 의무화



김민성 연구원

전세계적으로 ESG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다양한 ESG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정책과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① 2050 탄소중립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4월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에 녹색 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자산 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재활용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태양광 및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등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②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1월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ESG 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스톡옵션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를 제정했다. 정보공개 원칙,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주요 정보공개 표준 등을 기업이 실제 ESG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ESG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정보공개 의무화 일정을 점검하고 여타 규제·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ESG 확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2021년 상반기 ESG 관련 주요정책

정부 부처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4월) -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등 추진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4월) - 2021년 10월 부터 시행 예정 및 녹색 분류체계 마련, 환경정보 공시 대상 확대, 환경산업 범위에 재활용산업 추가 등
금융위원회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1월) - 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확대 ②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③ 스톡옵션 코드 개정 검토 ④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등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제정(1월) - 정보공개 원칙,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주요 정보공개 표준 등

국내 금융권의 ESG 동향



김예나 연구원

금융권도 ESG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내부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 및 대출 과정에서 기업들의 ESG 성과를 반영하는 ESG 금융도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① ESG 조직 구축 및 중장기 전략 제시

주요 금융 그룹들은 지난 해부터 ESG 경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위원회·협의회·TF 등의 형태로 조직을 만들고 그룹내 ESG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 체계와 연동하는 등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적가치 측정 모델을 개발해 전 그룹사에 적용하기로 했고, 우리금융그룹도 ESG 목표를 부여하고 성과평가에 연동하고 있다.

아울러 ESG 경영 관련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선언, 적도원칙 가입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KB 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7년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고, 하나금융그룹은 환경·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② ESG 관련 금융 상품 확대

최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ESG 성과와 금리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기업의 ESG 성과와 금리를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ESG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을 출시했고, 신한은행도 ESG 경영 우수기업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의 ESG 채권 발행 규모가 '18년 5400억 원에서 '20년 7조 69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금융권의 ESG 투자도 활발하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금융권의 변화를 감안해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 금융지주 ESG 경영 동향

금융지주	주요 내용
KB금융그룹	ESG 위원회 신설('20.1), ESG 상품·투자·대출 20조원 → 50조원 (KB 그린웨이 2030) * KB그린웨이브 ESG 우수기업 대출 : 평가기준 충족시 우대금리 최대 0.4% 제공 등
신한금융그룹	ESG 추진위원회 신설('21.2), 사회적가치 측정 모델 개발 및 그룹사 적용(신한SVMF) * 신한 ESG 우수상생대출 : ESG 우수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연 0.2%~0.3% 금리우대 등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협의회·경영위원회 신설('21), 그룹사별 ESG 목표 부여 및 성과 연동 * 2019년부터 9,500억원 규모의 원화표시 지속가능채권 발행
하나금융그룹	ESG 경영 TF 신설('20),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적도원칙 가입 추진 * 2019년 6억달러 규모 지속가능채권 발행, 2020년 5천만달러 사회적채권 발행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 신설('20), 적도원칙 가입 추진 * NH 친환경기업 우대론 : 환경경영 기여도에 따라 최대 1.5% 금리우대 및 추가 대출한도 제공

※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ESG 통계 지표

2021년 4월말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8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3	21	31	43	55	69	85
사회적채권	1	178	471	488	505	538	572
지속가능채권	1	8	44	46	58	69	93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잔액

(단위 : 천억 원)

	2018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6	21	30	43	57	72	90
사회적채권	3	246	736	766	786	847	918
지속가능채권	4	21	54	56	74	80	99

2. ESG 평가

(1)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S	A+	A	B+	B	C	D	총 기업 수
0	14	91	135	262	236	22	760

* 2021년 1,2차 등급 조정 결과 반영

(2) Sustainvest 서스틴베스트(2020)

AA	A	BB	B	C	D	E	총 기업 수
80	164	288	195	198	56	18	999

3. 기타 통계

대륙별 UN PRI 서명기관 수

(단위 : 개)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기타	총
		한국 제외	한국		
879	1967	260	11	458	3575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9월	ESG 경영 전략 Supply chain과 ESG
6월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규제·정책 동향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	10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7월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11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투어드십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8월	글로벌 ESG 평가 기준 및 특징 한국의 ESG 평가 및 특징	12월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김천구 연구위원
T. (02)6050-3140 | E. ck1009@korcham.net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선병수 책임
T. (02)6050-3133 | E. nova1045@korcham.net

2050 탄소중립과 정보공개 의무화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

국내 금융권 ESG 동향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ESG 통계 지표

이 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